엘로티스
(ELAWTICE)
선교단체
구상

이 재 영

세상 속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인의 공적참여
엘로티스의 사명

Table of Contents

I. 엘로티스(ELAWTICE) 1

1.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공적 참여 1
(1) 공공신학의 사명 8
(2) 공적 리더쉽을 갖춘 인재의 산실 11
(3) 진리와 진실의 수호 13
(4) 교회의 사회적 신뢰 14
2. 엘로티스의 사명과 역할 15
(1) 엘로티스 조직과 운영 15
(가) 엘로티스 공공정책협회 17
(나) 엘로티스 매거진 19
(다) 엘로티스 소사이어티 22
(라) 엘로티스의 운영 및 성장·발전계획 25
(2) 엘로티스 학파? 25
(가) 인간과 국가 · 공동체와의 관계에 관한 복음주의적 규정은? 26
(나) 공공신학 v. 공공정책 & 공공신학 v. 기독교 세계관 28
(다) 전통적인 신학 v. 공공신학 29
(3) 다음세대 리더 육성 31
(4) 대한민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치유와 화평 32
(5) 한국 교회의 위기와 엘로티스의 역할 34
3. 한국 교회의 위기 진단 35
(1) 기복주의 신앙 35
(2) 안일주의 신앙 36

II. 12.3 계엄과 탄핵에 관하여 42

1. 이재영, 개혁적 중도보수주의자 42
2. 12.3 계엄과 탄핵,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사명 42

- 이재영

현재 소망교회의 성도이다. 소망교회 대학부 겨울수련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곽선희 목사님을 통해 크리스찬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

선교단체 CCC에서 신앙공동체 생활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는 캠퍼스에서 '법대기독학생회'를 리더로 섬기고, 또한 캠퍼스의 기독학생연합회에 참여하면서 캠퍼스 복음화에 관한 사명에 동참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강남 사랑의교회 청년부에서 새롭게 신앙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며 옥한흠 목사님과 오정현 목사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배우며, 말씀으로 훈련받는 신앙 생활을 했었다.

프란시스 쉐퍼의 신학을 통해 재확인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며, 신학과 함께, 정신과 분석의로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 모건 스캇 펙(M. Scott Peck)의 영향을 받아 카를 융의 심리학을 연구하며 '복음주의 실존신학'을 탐색하고 있다.

- 엘로티스 (elawtice=EL+Law+Justice; 하나님의 법은 정의롭다)에 관한 고민

마태복음 5:13~16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고보서 2:14~17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대학생 시절, 캠퍼스에서 경험하게 되는 신앙 생활의 현실은, 복음주의의 공적참여와 현장에서의 부재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냉담함과 캠퍼스 전도에 대한 비기독교인의 반발, 각종 이단들의 침투와 그로 인한 종교적 갈등과 상처, 진보좌파 이념을 앞세운 종교단체들에 의한 정치적 영역의 주도권 독점이었다.

반면에, 한국의 기독교는 교회 울타리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생활에 익숙하며, 그러한 신앙 생활의 양식이 오랜 전통이었다. 그러한 전통적 양식이 개인 신앙의 성장에 집중하기에 용이한 신앙적 여건이 될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은사와 소명, 그리고 교회의 비전에 따라, 그와 같은 자신의 교회 안의 익숙함, 또는 울타리 안에서의 안주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과 시도가 요청되고 있지는 않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는 믿음의 행위, 즉 교회의 공적참여로 완결될 수 있는 것 아닌가?

I. 엘로티스(ELAWTICE)

1.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공적 참여

"교회는 세상 속에서 호흡할 수 밖에 없다"

김경진 목사, 소망교회

하나님 나라와 공공 정의: 카이퍼와 쉐퍼의 신앙 확장론[1] (이윤석 목사,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원장)	
아브라함 카이퍼	• 기독교 신앙은 교회나 예배, 개인의 경건에만 국한될 수 없다. 모든 삶의 영역(정치, 교육, 언론, 과학, 예술, 가정, 경제 등)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다양한 '영역'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영역 주권; sphere sovereignty) • 정치는 하나님의 질서를 구현하는 통치의 도구이다.
프란시스 쉐퍼	•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문화, 사회, 정치, 법, 윤리, 예술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 교회가 말하지 않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대해 침묵하면, 세상은 인간의 자율성과 상대주의에 휘둘린다. • 교회가 점점 사회의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따라 입법하고, 정책을 분석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고, 언론을 감시하고, 교육을 개혁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 정의(public justice)'란 무엇인가?	• 기독교 세계관에서 정의는 단지 공평한 분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사람과 공동체, 사회 구조를 세우는 것이다. • 하나님 나라의 공공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가 정책, 법, 예산, 제도, 구조 속에 스며드는 과정이다.

[1] 하늘의 시민권자, 땅의 정치에 책임지다 (예영 커뮤니케이션) pp.44~49.

그리스도인의 공적참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아, 소명 · 은사 · 비전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공공 정의를 이 땅 가운데에 이루기 위한 섬김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완성하는 믿음의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 "기독교의 변화 · 혁신, 대부분 '교회 밖 운동'에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 기독교 문명운동을 통해 공공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적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임윤택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이 구체화되고, 정치·교육·문화·과학·경제 등 삶의 전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강력한 힘이 스며들고 역사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가치가 구현되도록 하는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기도문의 핵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닌가"라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삶과 국가 속에 실제로 구현되도록,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실천하는 운동이 바로 기독교 문명운동"이라고 덧붙였다.

임윤택 교수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를 단순한 교세 감소나 청년 이탈 차원이 아닌, "기독교 문명운동에 대한 상상력 상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이제 교회 자체만 바라보는 시대를 넘어, 하나님 나라가 사회 전 영역 속에 구현되는 문명적 관점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윤택 교수는 한국교회가 문화 연구에는 익숙하지만, 문명 차원의 접근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나 한국교회가 문화는 이야기하지만, 문명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가치가 사회를 움직이며,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왔는지 등 문명사적 통찰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진단했다.

임윤택 교수는 랄프 윈터의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로 '이중 구조 이론(Two Structures Theory)'을 꼽았다. 그에 따르면, 랄프 윈터는 교회를 뜻하는 '모달리티(Modality)'와 교회 밖 기독교 운동인 '소달리티(Sodality)'가 함께 움직이며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고 보았다.

임윤택 교수는 "윈터 박사님은 소달리티와 모달리티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두 조직체이자 기둥으로 보셨다. 모달리티는 교회 안 조직이고, 소달리티는 교회 밖 조직, 즉 선교단체나 연구소 등 특수 사명 공동체"라며 "이 두 기둥이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가 가장 효과적으로 확장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임윤택 교수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기독교가 '교회 중심주의'에 지나치게 빠져, '이중 구조' 가운데 한 축인 '소달리티'를 경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윤택 교수는 "교회 조직과 함께 다양한 선교 활동을 진행하는 선교회 조직이 함께 발전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가 가장 효과적으로 발전해 왔다"며 "대학생 선교단체를 비롯해

신학교나 연구소, 선교훈련원, 기독교 문화 기관 등도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론 자체를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교회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선교단체에서 헌신하는 분들은 어찌 보면 이중으로 헌신하는 분들이고, 이들 또한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라며 "하지만 예를 들어 선교단체 간사들은 삶을 헌신했지만 교회 시스템 안에서는 애매한 존재로 여겼다"고 지적했다.

임윤택 교수는 지금은 이중 구조를 넘어 '멀티 스트럭처 네트워킹'의 시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심장도 있고 머리도 있지 않는가"라며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다.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와 연구소, 선교단체, 문화기관, 도서관, 훈련원 등 다양한 구조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디지털 네트워크 구조'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빌 게이츠가 디지털 신경망 개념(DNS)을 이야기했다. 조직 전체가 연결되면 정보와 결정이 동시에 공유되면서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것"이라며 "선교와 문명운동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윤택 교수는 "이제는 단순히 교회와 선교단체라는 이분법을 넘어, 다양한 구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대"라며 "교회는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쉽게 바뀌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문명 시대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도 방법이 바뀌어야지, 1970-80년대 모델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독교에서 변화와 혁신은 대부분 '소달리티'에서 시작됐다"며 "과거 제자훈련, 성경공부 운동도 처음에는 모두 교회 밖 운동이었는데, 그런 혁신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며 한국교회가 성장했음을 잊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임윤택 교수는 "랄프 윈터 박사님은 신학교 교육이 신학에만 치우쳐서, 인문학과 너무 거리가 멀어진 점에 대해 안타까워하셨다"며 "기독교 메시지를 다양한 학문들에 통합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과학자, 기독교 법학자, 기독교 정치학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 기독교 정신으로 다양한 문명의 영역에 진출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도 교단 간 경쟁이나 조직 유지에는 민감하지만, 미래 세대와 미래 문명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대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데, 서로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다. 교회는 뱀이 허물을 벗듯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생각하는, 새롭게 되는, 그리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생각하는, 새롭게 되는, 그리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2]

[2] '엘로티스'를 처음 구상했을 때, 생각을 정리했던 내용. (2014.1.24.)

개인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힘겨운 도전들과 겨루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 상황 속에 침몰되어 버리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할 '나의 좌표'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힘겨운 것은 아닌지', '내가 과연 이 시대와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의 연합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이 이제는 마음의 중심에서 어느 덧 멀어져 있음을 느낄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합치된 신앙의 성장과 실천적 순종의 삶이 올바른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개인 신앙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순종하는 올바른 방향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나의 경계'를 넘어선 공동체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어떠한 기준과 방법론을 찾을 수 있을까? 이에 관하여 세 가지 기준과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그리스도인이 정체된 신앙 생활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순종을 이루어 가기 위한 목표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Thinking Christian)

-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한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그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기 위한 무릎 꿇은 자의 자리로 나아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분별하며 배우는 그리스도인이다.

-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내면과 언행을 성찰한다. (자기 성찰의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의 생각과 사고의 불완전함, 죄성, 연약함을 우선 주 앞에 고백하고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통해 자기 내면과 언행을 살펴 회개하고 바르게 고쳐간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사고의 발전을 위해 지적인 훈련을 통한 연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나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의 뜻에 엎드린 자이다.

-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세상을 관찰하며 문제의식을 품고 고민한다. (세상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이웃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고민하고, 세상에 관하여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둘째, 새롭게 되는 그리스도인 (Transformed Christian)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변화와 성장의 여정에는 끝이 없다.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밟아가야 하는 기본적인 단계가 있다.

- '나'를 대면하기 (내면 질서의 확립)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사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바로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묶여 있고, 상한 마음과 왜곡된 자아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진솔되고 샘솟는 교제를 막는다. 그와 같은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진실되게 마음을 열 수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내적으로 침전되고 있는 것이 그 내면의 실제이다.

나의 연약함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앎' 또는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과 불쾌함의 '감정'으로도 존재한다. (상황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쉽게 인내심을 상실하고 흥분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은 그 순간의 불만족과 분노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것인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닫고 회피하게 된다. 이는 또한 자존감에 상처를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대면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는 바로 이것에서 기인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에 안주하고 있는 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도전을 감행해야 한다. '과거의 나'를 아껴서는 안된다. 그러한 도전을 위해서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 때에 비로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음의 길로 향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진리'이시고, 나의 유일한 '생명'이시며, '길'되심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첩경인 것이다.

- 새 사람의 정체성 확립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하늘의 권세가 나의 소유임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깨달음으로써 나의 내면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된다.

이러한 내면의 질서 확립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용기, 그리고 믿음과 도전 의식에 기초한 노력을 진실되게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할 수 있는 나의 가능성.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이미 믿음을 통해 실제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Participating Christian)

생각하고 새롭게 변화된, 새 생명의 그리스도인은 '나'의 경계를 넘어 더 넓은 세계에 참여함으로써 나와 나의 삶에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사랑을 나누고, 구체적으로 사회와 역사, 그리고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운영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나'를 넘어선 세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상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현실과 시대를 관찰하고 연구한다.

나의 이웃과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대와 현실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식을 갖출 뿐만 아니라 시대와 현실의 변혁에 대한 사명감을 정립해야 한다.

-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민주주의 제도는 사회라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제도로써 국민의 합의와 공감대에 기초하여 성립되어 있다. 가장 최상위의 법인 헌법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는 삼권분립과 인간의 존엄성의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중앙집권적 왕권제도 또는 독재를 극복한 정치제도이다. 권력의 집중을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방지하고자 함과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목표를 내포하고 있는 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의 선한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민주주의 제도의 이상을 현실 속에서 구체화 하는 데에는 협력적 지혜, 소통과 타협이 필요하다. 사실, 인간의 존엄성의 궁극적 실현에 대하여 복음 속에 담지되어 있는 하나님 사랑의 능력만이 가장 최고의 해답이 될 것이다.

정치 및 사회개혁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동일시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리스도인 개인의 차원과 교회 공동체 차원)은 민주주의의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에 각자의 은사, 능력, 사명을 따라 참여해서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하여 선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각하는, 새롭게 되는, 그리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Thinking Christian)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내면과 언행을 성찰한다. (자기 성찰의 그리스도인)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세상을 관찰하며 문제의식을 품고 고민한다. (세상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새롭게 되는 그리스도인 (Transformed Christian)
	'나'를 대면하기 (내면 질서의 확립)
	새 사람의 정체성 확립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Participating Christian)
	'나'를 넘어선 세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현실과 시대를 관찰하고 연구한다.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1) 공공신학의 사명

-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3]

한국교회 갱신의 관점에서 본 공공신학 논의 /김병권 박사

공공신학은 교회만을 위한 신학이 아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신앙을 설명하여 그들을 설득하고 사회적 변혁을 위해 영향력을 갖는 신학이다.

1974년 세계 150개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참석한 세계복음화국제대회에서는 로잔언약을 승인하였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를 포함하고 있다.

왜 이 문제를 계속 과제로 삼고 씨름을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하자면 복음 또는 신앙의 공공성이 한국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명시적으로 수용되었지만 그 명시적 공공성이 교인들의 삶이나 교회의 에토스에 실제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공공(公共)신학, 그러면 나는 사적(私的)신학 했나?[4]

공공신학자 칼빈을 연구한 김민석 박사, 한국공공신학연구소 소장

한 마디로 제 논문을 표현하자면, 제 논문 제목인 John Calvin as Public Theologian? Reading Calvin's Theology in the Light of Contemporary Discourses in Public Theology with Reference to the Korean Context에서 보이듯이, 칼빈의 신학사상과 그의 제네바 목회를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재고한 후 한국 교회 특히 한국 개혁교회에 적용점을 찾아보는 시도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저에게 있어서, 공공신학적 관점들이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역시 발견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수의 공공신학자들이 그 신학적 근거를 아브라함 카이퍼에서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더 거슬러 올라가 종교개혁자 칼빈에게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시도하였고요.

[3] 코람데오닷컴, 2014.11.30.

[4] 코람데오닷컴, 2020.06.16.

저는 20세기 말 이후 세계 교회의 그리고 최근 한국 교회의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현상은,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공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사적인 영역으로 숨는 듯한 양상에 대해 반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공신학의 목적은 이미 전통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공공성'을 더욱 강조하여 교회로 하여금 공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신학은 개혁주의 전통이 사적 신학을 해왔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 전통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공공성을 재발견하자는 운동이라고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신학이 아니면 사적신학이라는 말이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피하고, 공공신학은 복음이 지닌 공적 진리, 공공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신학이라는 말은 소위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미 오래된 용어입니다. 비전공자들이 볼 때 그분들의 영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보수신학도들이 공공신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공신학은 자유신학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저는 공공신학을 종교개혁자 칼빈과 연결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보수 교단 신학교에서 - 프린스턴 대학교의 Abraham Kuyper Center for Public Theology 와 같은 - 공공신학 센터를 세워서, 한국을 대표하는 공공신학 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세계 공공신학회에서 한국적, 개혁주의적 공공신학을 활발하게 소개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모든 것이 우리 기도와 정반대인 상황 앞에서…" (이태희 목사, 그안에진리교회)

지금은 공산주의의 영과의 싸움이고, 그래서 반기독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공산주의와 맞부딪히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럴수록 성경적 세계관·역사관·정치관을 더 확실하게 교육시키고 교육 주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주권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성경적 역사관이든 정치관이든, 성경적 세계관의 틀 안에 있죠. 성경적 세계관은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 세계 안에 정치부터 문화, 경제, 역사 등 다양한 영역들이 있죠. 이 영역들을 성경적 프레임으로 바라보도록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는 방법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 그동안 너무 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을 가르쳤지만, 성경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훈련시켜 주지는 않았어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하지만, 엄연히 분리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서 성경 자체를 통달할 순 있지만,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은 다른 영역이거든요.

여기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이 현재 한국교회가 약해진 이유이고, 내세 중심적 생활로 현실에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의 이원화와 세속화가 일어나는 원인라고 봅니다. 성경은 잘 아는데,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성경적으로 살아갈 훈련이 안 돼 있으니 허약해진 거죠.

"목회자들이 성경은 잘 가르치지만, 성경적 세계관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체적 방법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성경과 세상을 별도로 놓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성도들이 이미 진영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교육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방향을 제시하면 '목사님,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칫 교회가 분열하고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美 복음주의, 분열과 양극화 직면… 공적 영역 참여 신학 필요"
  (전미복음주의협의회 회장 월터 김(Walter Kim) 목사)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에 대해 김 회장은 '분열'과 '양극화'를 꼽았다. 그는 "지금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복음주의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민 패턴, 거주 지역, 뉴스 출처, 신학적 유산에 따라 복음주의는 사회의 분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극화는 단순한 분열보다 더 심각하다. 서로를 불신하고 경멸하는 파편화가 분노 알고리즘과 결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복음주의는 관계 강화, 기도, 예배 같은 개인적 영역에는 강하지만, 정책과 집단 행동 같은 공적 문제를 다루는 데는 약하다"며 "우리는 구원 신학과 개인적 회심, 결혼 생활을 돕는 일에는 능하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다르다. 직장 윤리뿐 아니라 '일 자체의 윤리'는 무엇인가? 이민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안보와 환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나는 교회에 '문화적 참여의 신학'이 부족하다고 자주 말해왔다. 그 신학이 없기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대중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체제"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사파, 공산주의자, 북한의 주체사상은 하나님을 거역한다.

- 개혁주의 정치관의 기본 원칙 (문신효 목사, 울산산돌교회)

우리는"정치에 빠진 목회자가 아니라","정치를 개혁주의 신앙으로 바꾸어야 하는 시대적 중요한 책무가 주어진 목회자들이다." 답은 분명하다.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 정치를 판단하고 바른 소리를 외쳐 주면 된다. 좌파 우파 정치인들이 행하는 모든 정치의 행위들에 대해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2) 공적 리더쉽[5]을 갖춘 인재의 산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정한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섬기는 지도자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지도자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현실을 직면할 용기와
도덕성(integrity)에 기반한 지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형우 교수, 한남대학교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영성과 지성이 통합(프란시스 쉐퍼)되어 진리와 진실에 헌신하는 공적 양심에 기초한 리더쉽이 요청된다. 공적 양심은 '상대주의'와 '자기중심성'(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을 극복한 신앙이다.

- 상대주의와 형식주의를 타파하는 능력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5] '공적 마인드'(public mind)는 나경원 의원이 '진정으로 국민만을 생각하는 정치인'의 마인드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절대적 진리를 붙잡는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상대주의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에 있다. 상대주의의 핵심은 인간 자신, 내 자신이 모든 기준이기 때문에, 상대주의의 심장은 인간 중심의 자아로 펄떡펄떡하고 있는 것이다. (사사기 21:25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참된 공의, 진정한 정의는 절대 진리의 표준이신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것이다 (시편 89:14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절대 진리와 참된 도덕의 중추 신경을 마비시키는 상대주의를 극복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재능을 많이 받은 자일수록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0:26~:27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3:11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 "교회 안에서만 활약하는 '기형적 제자화' 극복해야" (양승준 박사, 세종대 교목)[6]

"'믿음 중심'의 패러다임을 '삶 중심'으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하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참된 인성을 형성해 '세상을 돌보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이야말로 올바른 신앙과 인성의 도야"라며 "이를 위해 교회 안에서 활약하는 기형적 제자화를 극복하고, 삶을 통해 드러나는 제자시민화를 위한 교육목회적 방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 성경이 말하는 통치자의 10 가지 자질 (이재욱, 코람데오닷컴)

하나님께서 통치자에게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성품들은 예배(worship), 의(righteousness), 정의(justice), 지혜(wisdom), 정직(honesty), 도덕성(morality),

[6] 한국기독교교육학회(회장 박은혜 교수) 2025 하계 학술대회: '사회적 목회와 기독교교육'을 주제로 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양승준 박사(세종대 교목)가 '사회에 생명을 주는 기독교교육: 성찬적 삶과 목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강연했다.

겸손(humility), 가르침을 받는 자세(teachability), 보호와 안보(security), 용기(courage)이다.

- [한기윤 이슈 리포트] 성경적 리더십의 신비, '위대한 하강' (이춘성 박사 한국기독윤리연구원)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교회에 필요한 성경적 리더십은 무엇인가? 성경적 리더십의 본질은 리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라는 의식, 곧 '종 의식'에 있다. 리더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끝이 되어야 하며, 공동체가 그분을 바라보도록 이끄는 사람이다.

오늘의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리더란, 공동체와 개인이 놓치고 있는 결핍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 빈틈을 은연중에 채워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감과 효능감을 공동체 안에서 되찾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이런 리더십은 개인의 내적 동기와 자발적인 헌신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위대한 조직'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3) 진리와 진실의 수호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 · 통치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잠언 16:10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사적인 욕심과 헛된 풍조를 위해 세상의 거짓과 불의를 도구로 사용하는 죄악에 대적하여 진리와 진실에 헌신하는 공적 양심을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공적 양심은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영성과 지성이 통합(프란시스 쉐퍼)된 심령에서 비롯된다.

복음이 시대와 상황을 풀어가는 기본 담론이 되지 않으면, 복음은 유일한 진리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

- 언어가 뒤바뀐 사회의 부조리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면 공범이 되는 것이다. 선을 선이라 부르지 못하고 악을 악이라 부르지 못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언어가 무너지는 것이다. 언어가 무너지면 회개의 문이 닫힌다. 거룩한 선지적 사도성을 가진 선봉장이 되어서 언어가 뒤바뀐 이 사회 가운데 강력한 진리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한국 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한다.

- 버가모 교회의 교훈 (김경진 목사, 소망교회)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류와 K-POP, 그리고 2023년 전 세계 강대국의 위상 (6위)을 떨쳤지만, 현재 계엄탄핵 사태, 그 한 순간의 위기로 국위가 추락하고 대외신인도가 위태롭게 불안정하다. 왜? 외부적인 공격이나 강대국의 침탈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 내분의 혼란, 지도력의 부재로 인한 것이다. "애국"을 굳게 잡고자 하나, 잘못된 길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가 무너지면 어떠한 위대한 나라도, 기업도, 가정도 온전할 수 없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6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진실의 검으로 거짓을 심판한다)
"거짓된 입술들을 예수께서 주님의 입으로 처단하시겠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거시적 명분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미시적인 실천이 거짓으로 왜곡되고 미혹될 수 있다.

(4) 교회의 사회적 신뢰

사회를 향한 교회의 소통의 채널이 열려 있어야 하고, 교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동에 따라 진정성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복음주의가 자리를 비운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싹튼다.

- [CBS 뉴스] 정치에 매몰된 강단…목회자 정치 참여 88.5% 반대

일부 종교 지도자의 정치적 행보가 교회 전체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성석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정치적 참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참여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최소 규범을 우리가 합의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개혁세력도 마찬가집니다. 독선적인 공격적인 방식의 소통 이것을 한국교회 전체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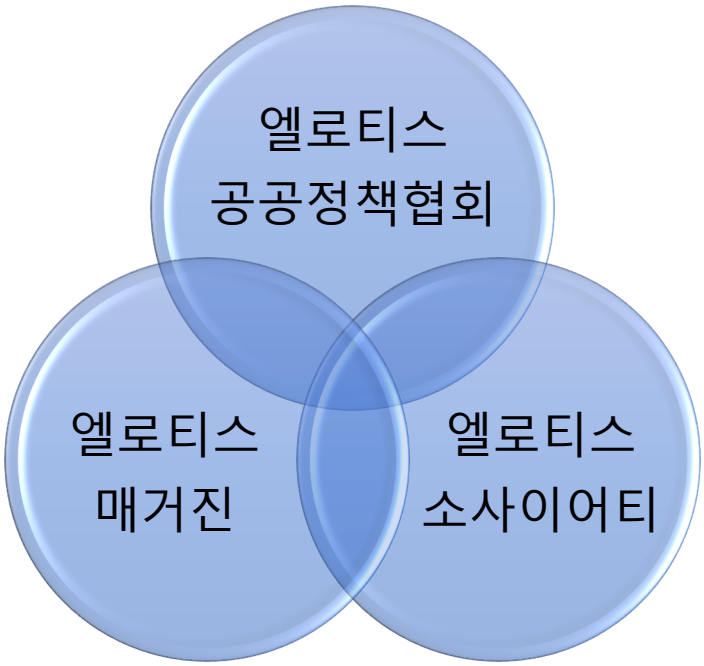
2. 엘로티스의 사명과 역할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이미지의 위기에 대응하여) 독선적인 공격적 방식의 소통을 지양하고, 합의와 최소한의 규범에 따른 새로운 정치적 참여 방식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석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

(1) 엘로티스 조직과 운영



엘 로 티 스 조 직	역 할
엘로티스 공공정책협회	• 기독교세계관 · 공공신학 이론과 사상 · 복음주의 실존신학에 관한 통섭적 연구를 기반으로, 현실 분석과 공공정책 분야(정치, 경제, 안보, 교육, 환경과 기후, 인권, 가정, 디지털, 과학과 기술, 통일과 한반도 평화 등)에 관한 정책 기획 •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리더쉽, 교회연합, 이단과 거짓된 제자 · 교사 분별
엘로티스 소사이어티	• 교회와 캠퍼스별로 형성되는 선교 조직 및 네트워크 • 그리스도인의 공적참여를 교회의 예배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조직 • 그리스도인의 공적참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와 드리는 제사로서의 교회 예배의 영적 권위와 그 가치 아래에 있는 것이다. (예배없이 공적참여는 성립하지 않는다) • 개별 교회와 캠퍼스의 공적 참여의 필요와 예배 · 신앙 양식의 전통을 고려하여 맞춤형 소사이어티 조직
엘로티스 매거진	• 진리와 진실의 수호를 위해 다투는 빛과 소금으로의 사명을 수행하는 온라인 언론 매체 • 교회의 사회적 신뢰 과제를 위해 교회와 세상을 연결

엘로티스 공공정책협회		엘로티스 소사이어티
엘로티스 매거진		
그리스도인의 공적 리더쉽 활동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 육성과 공적 참여

(가) 엘로티스 공공정책협회

기독교 세계관 · 공공신학 · 공공정책 연구기관 및 조직간의 파트너쉽과 네트워크를 기초로 하여, 기독교 세계관 · 공공신학 · 공공정책 전문가들이 통섭적인 연구를 통해 복음의 진리의 기초분야에 해당하는 기독교 정치철학과 윤리와 함께, 정치적 · 사회적 현실에 관한 문제의식, 당면한 도전 과제에 대하여 교류하는 장을 마련한다.

'행동하는 연구가', '행동하는 사유자'로서 복음적 현실주의를 정립하는 엘로티스 학파

- **'엘로티스 공공정책협회' 타이틀의 의미**

'엘로티스 협회'로 수정하려는 고민이 있었으나 '엘로티스 공공정책협회'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엘로티스 공공정책협회'의 그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정의를 기초로 하는 공공정책 연구 조직'이다. 이 조직은 기독교 세계관 · 철학 · 윤리를 가치 기반으로 하면서, 공공신학의 사명과 이론, 그리고 방법론을 토대로 삼으며, 하나님 나라의 공공 정의와 질서를 통치의 영역, 즉 정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명(아브라함 카이퍼)을 추구하기 위한 조직이다.

기독교 세계관, 공공신학, 그리고 공공정책의 세 분야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개별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며,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공공 정의와 질서를 구축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 **엘로티스 어젠다들의 예**

i.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 원인과 처방
ii. 사적 폭력과 법치주의
iii. 한국교회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극우 프레임'
iv. 포스트트루스 시대(김영한 박사), 그리고 진실의 수호
v. 경제적 정의란 무엇인가?
vi. 케데헌의 '루미'와 '진우'는 어떻게 구원될 수 있을까?
vii. 인간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viii. 글로벌 위기와 갈등: 전쟁, 경제: 발전과 안보, 기후, 이민

기독교 세계관 · 공공신학 · 공공정책 연구기관 및 조직간의 파트너쉽과 네트워크 속에서, 어젠다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 · 공공신학 · 공공정책 전문가들이 공조하며 해법 및 결론을 도출하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 · 공공신학 · 공공정책 각 분야의 새로운 이슈와 과제를 상호 제안하거나 발굴함으로써,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美 '2026 리더십 서밋' 기조 강연 초청

이 목사는 이번 강연을 통해 한국 교회의 핵심 부흥 동력이자 인류 보편적 가치인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영성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현대 사회를 치유하고 통합으로 이끌기 위한 성경적 리더십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유례없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언급하며,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감사' 문화가 어떻게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확충하고 국가적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지, 실천적 방안을 공유한다. 이는 2026년을 원년으로 선포한 '국민 감사 운동'을 국제 리더십 아젠다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날인 20일, 이영훈 목사는 미 국회의사당(U.S. Capitol)에서 진행되는 '임원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한다. 세미나는 현직 상·하원 의원들이 직접 주재하며 안보, 기술(AI), 소상공인 지원, 금융 문해력 등 국가 경영의 핵심 과제들을 다룬다.

이 자리에서 이 목사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공공 정책 수립과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 에이프릴 맥클레인 델라니 하원의원 등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신학 연구[7]
  (장종현 박사, 백석대학교 총장)

한국교회는 분열과 세속화로 인해 사회적 신뢰조차 상실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요즘 '공공신학'이라는 말이 등장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서로를 사랑해서는 안 되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음을 알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

신학은 오늘날의 사회적 이슈와 공적 담론과 적극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시대적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사회 정의, 인권, 생태 환경, 평화 구축, 경제 불평등과 같은 공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에 대해 균형 잡힌 성경적 관점과 해결 방안을 신학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한 해답 역시 성경에서 찾고,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공적 역할에 대한 근거 역시 성경에서 찾을 때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으로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

신학은 다른 학문 분야와의 학제 간 대화를 통해 공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들과의 협력을 통해 신학은 좀 더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학문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해서 신학의 공적 신뢰성을 높이고, 현대 사회에서 신학의 유의미한 역할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나) 엘로티스 매거진

국제적 · 정치적 · 사회적 · 문화적 현안 이슈와 사건에 관하여, 합리적 논증과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다투며 진실과 진리를 수호한다.

온라인 미디어 매체를 통해 진실과 진리를 전파한다.

---

[7] 개혁주의생명신학: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 (도서출판 LCN) pp.390~393.

- 왜, '기독 언론'이 필요한가?[8] (이윤석 목사,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원장)

언론은 비판의 도구이기 전에, 공동체의 거울이다. 정의로운 언론은 잘못을 드러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생명의 문제로 돌리고, 침묵 속에 묻힌 진실을 복원하며, 공공의 선을 위해 담론을 여는 공간이 된다. 기독 언론은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빛 아래에서 감당하는 도구다...

거짓이 넘치는 시대에 진실을 말하고, 혐오가 일상화된 시대에 공감을 말하며, 권력이 언어를 독점하는 시대에 약자의 말을 대변하고, 정치가 진영의 도구가 되는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독 언론의 사명이다...

한 도시의 개발 방향, 학교배정, 복지 정책, 조례 개정 등은 지역 언론을 통해서만 비로소 드러나고 논의된다. 문제는 많은 지역 언론이 지방정부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했거나, 정당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설 플랫폼이 된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 생명을 기록하는 사람, 정의를 질문하는 사람, 복음을 여론으로 전환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신자들이 많아질 때 도시는 변화하고,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서 다시 설 수 있다.

- "문화 변증, 지성 아닌 마음으로 그리스도 갈망하게 하는 사역"

그루(Grew)·복음과도시가 6월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일교회(담임 송태근 목사)에서 팀 켈러 목사(Timothy J. Keller, 1950-2023) 3주기 기념 포럼을 '팀 켈러의 문화 변증과 설교'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영준 목사(큰숲작은씨앗교회)가 '탈기독교시대 문화 변증'을 강의했다. 정영준 목사는 "문화 변증(Cultural Apologetics)은 일종의 복음 전도를 위한 예비 단계(pre-evangelism)다. 이는 우리가 타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그 문화의 서사 속으로 들어가, 누군가의 세계관을 복음으로 '재구성' 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들 내면의 가장 깊은 갈망과 열망을 긍정하는 동시에 거짓과 반쪽짜리 진리, 그리고 불행으로 이끄는 잘못된 방향성을 폭로한다"고 말했다.

이웃의 회심에 관한 눈물이 부재하다면, 상대의 죄를 지적할 영적 자격이 없다. 회개를 염원하는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다

문화 변증의 방법으로는 '전복적 성취(Subversive Fulfillment)'를 제시했다. 그는 "긍정(Yes)과 폭로(No)의 '이중 역학'이 필요하다"며 "정의, 인권, 사랑 충만을

[8] 하늘의 시민권자, 땅의 정치에 책임지다 (예영 커뮤니케이션) pp135~138.

갈구하는 목마름 자체에는 '지극히 선하다'며 공감으로 격려하되(Yes), 그들이 수립한 자율적 해결책과 시대적 우상이 얼마나 금세 바스러질 토대에 불과한지 냉철히 증명해줘야 한다(No)"고 밝혔다.

사도행전 17장 속 '아테네 변증'을 떠올리면서 4가지 'E'로 설명했다. 그는 "바울은 먼저 낯선 문화를 향해 정죄의 칼을 휘두르지 않고, 그들의 아레오바고 중심 속으로 담대히 걸어들어가 경청했다(진입: Enter). 이는 문화의 신선한 침투"라며 "이후 해체에서 복음 전도로 이어졌다. 은혜의 요소와 그에 부착된 우상들을 찾아내고(탐색: Explore), 우상이 파괴적인 사기임을 밝히며(폭로: Expose), 복음을 전복적 성취로 제시했다(전도: Evagelize)"고 분석했다.

또 "문화 변증은 현관 앞의 '포치(Porch)', 즉 교회와 세상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세속 거리와 성소 사이의 중간 공간으로서 기독교 독서 모임 및 공개 강연, 소외된 이웃을 돕는 긍휼 사역 등이 포함된다"

끝으로 일상생활 속 문화 변증 프로세스 5단계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관찰(Observe): 상대방의 문화적 텍스트(상황, 유행, 행동)를 있는 그대로 묘사 ②이해(Understand): 행동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실존적 외침(갈망) 파악 ③공감(Empathize): 그들이 바라는 문화적 스토리라인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공감 ④해체(Deconstruct): 그 스토리라인이 가진 결핍이나 모순을 부드럽게 지적, 궁극적 해답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 ⑤성취(Fulfill):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이 애타게 찾는 그 갈망을 참되게 성취할 수 있음 등이다.

- **공공신학, 문화 변증(문화명령), 그리고 앨로티스 매거진**

공공신학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세상 속의 담론들을 기독교 세계관과 윤리, 그리고 신학의 공론장으로 끌어오고, 또한 세상의 공론장으로 뛰어 드는 역할을 한다. 공공신학은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 행동하는 신학'인 것이다. 공공신학은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와 세상을 연결해간다. 엘로티스 매거진은 그 어젠다와 이슈의 설정과 구성에 따라 기독교 신앙을 위한 공론장이며, 동시에 세상의 공론장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는데, 즉 공공신학과 문화 변증을 위한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 대중과의 소통 강화[9]
  (장종현 박사, 백석대학교 총장)

[9] 개혁주의생명신학: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 (도서출판 LCN) pp.394~396.

신학도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학적 메시지가 사회 속으로 구체적으로 실천되도록 해야 합니다. … 대중 매체, 소셜 미디어, 팟캐스트와 같은 현대적 플랫폼을 활용하여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대중과 대화를 나누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신학적 담론을 현대인의 일상과 연결함으로써 신학이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학은 교회 내의 학문에 머물지 말고 사회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시유와의 연계, 학제 간 협력, 대중과의 소통, 실천 모델 제시와 같은 구체적 방안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신학은 교회의 경계를 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며, 공적 영역에서 신학의 학문적 역할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엘로티스 소사이어티

도입 초기에는 (캠퍼스와 교회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신학대학교·일반대학교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엘로티스 소사이어티 모델을 개발하고,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신학대학교와의 중간 연계를 통해 또는 그러한 연계없이 직접적으로) 교회로 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강남 사랑의교회 청년부의 사회문화부 산하에는 '한국 교회와 사회를 생각하는 모임'(한생모)가 있었다. 한생모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교회 관련 이슈를 비롯하여, 정치적·사회적 의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모임으로서, 토론 주제들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운영되었다.

신학과 기독교 세계관 등에 관한 지식 함양·훈련 이전에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과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

- 귀납법적 성경연구 방법 (국제제자훈련원 참조)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확립 필요

- 청년부 사역은 사회 참여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10] (이윤석 목사,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원장)

[10] 하늘의 시민권자, 땅의 정치에 책임지다 (예영 커뮤니케이션) p180.

청년들은 이미 세상의 문제를 알고 있다. SNS와 유튜브, 학교와 직장에서 각종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매일 접하고 있다. 문제는 교회가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질문한다.

"차별 금지법은 왜 나쁜 건가요?"

"정치는 왜 항상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취득을 허용해도 되나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어떻게 보야 하죠?"

"북한의 핵 개발을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업나요?"

"내가 기독 청년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이러한 질문에 침묵하는 청년부는 복음의 현실성이 사라지는 공동체가 된다. 하지만 질문을 수용하고, 말씀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의 방향을 함께 찾는 청년부는 디지털 시대의 바나바 공동체가 된다.

<table>
<tr><th colspan="3">엘로티스 소사이어티 모델 (대학생·청년)</th></tr>
<tr><td colspan="2">신앙의 성장</td><td>성경공부
소그룹
(귀납적
성경공부법)</td><td>말씀훈련과 소그룹 섬김
('생각하는·새롭게 되는·행동하는
그리스도인 프로그램'과 함께)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자':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자'라고 부르신 것(요한복음 1:47~49)은 숙어적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자신이 모르는 것을 정직하고 진실되게 묻는 자를 의미한다(이재훈 목사). 귀납적 성경공부법의 취지.

(교회에 따라, 교회에 소속된 엘로티스 소사이어티는 해당 교회의 설교 말씀에 맞춤형으로 소그룹 프로그램 마련)</td></tr>
<tr><td></td><td>배움과 경험</td><td>토론·참여
그룹</td><td>기독교 세계관, 공공신학, 성경적 담론[11],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이슈 토론 활동</td></tr>
</table>

[11] 예를 들어, '솔로몬의 실패와 이스라엘 민족의 쇠망'과 같은 주제들.

			(엘로티스 토론 프로그램) 기독교 세계관 · 공공신학 · 공공정책 조직과 기관 인턴쉽 활동
		리더쉽 훈련	엘로티스 리더쉽 프로그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와 리더쉽 교육 기독교 세계관 · 공공신학 · 공공정책 지식탐구 멘토링

생각하는 · 새롭게 되는 ·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프로그램	▪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키우며, 그와 함께 말씀이 뿌려지는 내면이 "좋은 땅"(마태복음 13:18~23; 마가복음 4:14~20)이 되도록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준비하는 신앙 성장 프로그램 ▪ 말씀에 기초한 신앙의 성장을 위한 단계적 목표를 제시한다.
엘로티스 토론 프로그램	▪ 대학생과 청년들이 토론 활동을 통해 정치적 · 사회적 · 문화적 현안 이슈를 이해하는 시야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관련된 기독교 세계관 · 공공신학 · 공공정책에 관한 기초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생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기적인 포럼 활동을 개최한다. ▪ 엘로티스 공공정책협회와 엘로티스 매거진의 연구 · 출판을 통해 토론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지식을 제공 받는다.
엘로티스 리더쉽 프로그램	

엘로티스 주니어 프로그램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적 케어와 사회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교회가 제 2 의 학교, 제 2 의 가족으로서, 학생들에 대한 보완적인 케어와 지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한국 사회의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는 학폭, 마약 · 게임 · 도박 중독, 자녀학대 등의 위험에 대응하여 학교와 가족을 보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라) 엘로티스의 운영 및 성장 · 발전계획

기독교 세계관 · 공공신학 · 공공정책 전문가들이 엘로티스 창립 파트너로서 엘로티스를 공동으로 창립하며, 창립 후에는 엘로티스의 창립 파트너들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된다.

엘로티스 공공정책협회 창립 및 엘로티스 소사이어티 활동으로 시작하여, 그 이후의 발전계획에 따라 엘로티스 매거진을 창간한다.

단계별 성장 · 발전 계획			
1	2	3	4
엘로티스 공공정책협회 창립	엘로티스 소사이어티	성장과 발전의 궤도에 안착	엘로티스 매거진 창간

(2) 엘로티스 학파?

복음주의의 기초 위에서 기독교 세계관, 공공신학, 그리고 공공정책을 통섭적으로 연구하며, 성경 말씀의 진리와 성령의 지혜를 통해 복음의 현실적 적실성(適實性)을 확립하는 공적 신앙을 실천하는, '복음적 현실주의'를 따르는 조직 또는 단체를 일단 임시로 '엘로티스 학파'라 칭하도록 하자. 이 학파의 방법론을 고민해보고자 한다.[12]

(가) 인간과 국가 · 공동체와의 관계에 관한 복음주의적 규정은?

-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으로부터 현실에 적용되는 복음의 현재적 진리성이 도출된다.
- 인간은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가며, 현실 속에서 존재한다.

- **인간과 국가의 민주주의 정치체제**

이형우 교수의 성경적 민주주의[13]

칼뱅에 따르면, 인간은 '전적 타락'상태(total deprivaty)에 빠져있기 때문에, 독재권력은 반드시 부패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적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므로 삼권분립 원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제제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 의하여 독재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태를 방어하는 데에 더 주안점을 둔다. 민주주의가 문제가 많다고 하여 이를 파기하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세우자는 말은, 맹견을 붙들고 있는 목줄이 허술하다고 하여 맹견을 풀어놓자는 말과 같다. 민주주의는 독재와 비이성, 폭력과 야만이라는 맹견을 붙드는 목줄과 같다.

- **인간과 공동체: 책임 · 리더쉽 · 공공선**

  - 공동체적인 책임의식

곽선희 목사, '한 과원지기의 믿음'(누가복음 13:6~9)

---

[12] 개인적인 생각으론, 소망교회의 목회설교의 전통이 이와 같은 것도 같다. 곽선희 목사님, 김지철 목사님, 그리고 김경진 목사님, 김주경 목사님

[13]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본질과 성경적 부합성에 관한 고찰, (월드뷰) pp.238~239.

사랑하는 마음은 책임지는 것이다. 열매없는 무화과나무에 대하여 그 과원지기는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 열매없는 세대를 향하여, 열매없는 교회를 향하여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임지고, 수고하며 희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곽선희 목사님의 '한 과원지기의 믿음'의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은혜를 받은 사명자는 공동체적 열매의 수익의 몫을 차지하기 위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에 공동체적 열매에 대하여 사명과 책임의식을 가진다. 이것이 공동체적 책임의식이다.

- 공동체를 위한 리더쉽

김민석 교수의 정치 지도자의 리더쉽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아)[14]

느헤미아가 보여준 현실적인 리더쉽에는 다음과 같은 리더쉽이 있다. 공동체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여 책임을 지는 리더쉽, 백성을 동역자로 신뢰하고 그들의 자발성과 협력을 이끌어 내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통합의 리더쉽, 공동체 내부의 불의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쉽, 도덕적인 청렴성을 갖춘 리더쉽, 공의로운 실천으로 권위를 세우는 리더쉽.

- 공공선과 공동체

김경진 목사: 선함의 번짐 (에베소서 4:16)

'선함의 번짐'에서 '번짐'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악함이 번져가는 악한 세상과 다투어야 하는 교회가 선함을 번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선함'은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현하는 교회의 소명을 의미한다.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신경망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숲은 고립된 나무들의 집합이라기 보다는 나무들이 땅밑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어머니 나무'를 중심으로 생명을 나누며, 햇빛을 받지 못하는 묘목의 성장을 돕기도 하는 것과 같다. '몸'의 특성은 '밀도높은 상호의존성'과 '전신적 흡수성'이다. 입으로 약을 먹어서 아픈 발이 치유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몸의 한 부위와 다른 부위가 한 몸의 건강과 생명을 이룬다.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 '자아'를 가지는 인간의 공동체적 존재성

[14] [김민석 칼럼] 새 정부의 시작, 교회의 임무 (데일리굿뉴스, 2025.6.7.).

인간은 원죄를 범하면서, ‘자의식’, 그리고 ‘자아’를 가지는 존재가 되었다. 모건 스캇 펙(M. Scott Peck)에 따르면, 인간은 자아인식을 통해 다른 사람과는 별개의 독립된 존재로서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살면서, 동시에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생존과 생활의 영위 과정 속에서 상호의존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존재이다.[15] 다시 말해서, 인간은 개인적으로 독립적이면서도 상호의존적인 공동체적 존재로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이 ‘자아’로부터 인간의 온갖 정신병리적 문제의 원인과, 공동체적 관계에서 장애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발생한다. 성경 말씀은 ‘옛 사람’(자아)이 깨어져 ‘새 사람’이 되라고 하신다. (로마서 6:6; 에베소서 4:22) 그런데, 인간이 육신의 습관대로 ‘자아’를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마음의 할례(오정현 목사: 회개)가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음주의적 실존신학’은 이와 같은 인간의 ‘자아’의 정신병리적 원인에 대한 치유와 ‘새 사람’의 생명력, 그리고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은혜를 영위하는 삶을 복음주의적으로 밝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로써, ‘복음주의적 실존신학’은 정신분석학 언어를 매개로 하여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능력의 의미를 세상에 더욱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나) 공공신학 v. 공공정책 & 공공신학 v. 기독교 세계관

‘공공신학’과 ‘공공정책’은 다르다. ‘공공신학’은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성경적 진리와 가치관에 기초한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과 ‘공공신학’은 다르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 진리와 가치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다. ‘공공신학’은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의식을 따라 “공적 신앙”(김민석 교수)[16]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다.

‘공공신학’은 ‘공공정책’이나 ‘기독교 세계관’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지만, 세상을 향한 소통의 뿌리에는 성경적 진리와 가치관이 존재하며, 공적 신앙의 실천으로서 ‘공공정책’ 제언은 정치라는 통치의 영역에 참여하며 중요한 공동체적 기여를 할 수 있다.

---

[15] 모건 스캇 펙(M. Scott Peck), 아직도 가야할 길, 그리고 저 너머에(The Road Less Traveled and Beyond), (열음사) p.170.

[16] [김민석 칼럼] 지방선거와 공적 신앙의 자리 (데일리굿뉴스, 2026.5.6.).

엘로티스 공공정책협회는 기독교 세계관, 공공정책, 그리고 공공신학을 통섭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을 취할 수 있고, 반면에, 엘로티스 매거진은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서, 중요 담론에 관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성경 말씀의 설명과 해석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논증과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진실을 밝히며, 진리를 수호하는 역할에 그 사명이 있다.

(다) 전통적인 신학 v. 공공신학

전통적인 신학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통치의 세계를 우선적인 전제로 하고, 인간의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존재하는 세계다. 그런데, 공공신학은 그러한 전제에 기반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해가 없는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화법을 전환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 '다원주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목사는 〔데일리굿뉴스〕에서 "절대적 믿음이 부르는 폭력성: 공공신학의 시선으로 본 오늘의 한국교회"[17]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밝힌다.

> 오늘날 기독교는 마치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다양한 신념과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다. 따라서 기독교는 자신과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다양한 인종, 문화, 신념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평화와 공공선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
> 생각해보라.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만약 모든 종교 집단이 각자의 신념을 고수하겠다며 사회적 힘겨루기에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 그건 평화가 아니라 혼돈이고, 결국 지옥 같은 세상일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가?
>
> 물론 이것은 기독교 신념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경에 근거한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신념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중한 태도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표현되고 설득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강압이나 혐오가 아닌, 이해와 설득을 통해 전해질 수 있다.

[17] [김민석 칼럼] 절대적 믿음이 부르는 폭력성: 공공신학의 시선으로 본 오늘의 한국교회 (데일리굿뉴스, 2025.4.9.).

공공신학의 화법은 세상과 파트너로서 대화하기 위해 '진리와 진실의 수호'라는 공적 목표를 주창하며, 합리적인 논증과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서, 세상 속의 담론들을 기독교 세계관과 윤리, 그리고 신학의 공론장으로 끌어오고, 또한 세상의 공론장으로 뛰어 들어야 한다. 공공신학은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 행동하는 신학'인 것이다. 공공신학은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와 세상을 연결해간다.

이런 견지에서 '엘로티스 매거진'은 온라인 언론매체로서 공적 참여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공공신학은 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엘로티스 매거진은 그 어젠다와 이슈의 설정과 구성에 따라 기독교 신앙을 위한 공론장이며, 동시에 세상의 공론장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공공신학은 또한 공공정책과의 통섭적 연구와 협업을 통해 정책적 제언으로써 정치에 참여하며 공동체적 삶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교회,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공성 회복해야"[18]

성석환 교수(장신대)는 우선 "한국 공공신학의 문화적 실천"에 대해 발제를 했다. 성 교수는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은 한국적 상황을 토대로 성립된 신학이 아니라 영/미 신학자들의 주장을 수입한 터라 우리 상황에 맞게 수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신학은 마틴 마티와 로버트 벨라가 리인홀드 니버를 공공신학자로 언급하면서 처음 사용했다."면서 "벨라와 마티 모두 신학의 공적 역할이 시민종교와는 분명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벨라는 시민종교가 대중적으로 사화화된 종교라면 공공신학은 기독교적 정보를 사용하면서도 국가나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해 응답하고 도덕적인 방행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자료(신학 외부의 의견과 자료)와 대화한다고 보았다."며 "그래서 공공신학은 시민사회의 필요나 문제에 대해 응답하되 국가나 다른 사회단체보다 기독교 전통에 서서 통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신학은 구체적인 정황에 응답하며 시민사회의 생활세계와 접촉한다."며 "그래서 가족, 교회와 지역사회, 경제활동, 세금문제 등이 모두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면서도 공적 영역에 속하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장에서 공공신학은 윤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한국적 상황에서 '공적 선교론'의 실천에 대해서는 한국적 공공 영역에 대한 '두터운'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성 의제와 '공동의 선'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요청과 공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18] KHN, 선교적상상력연구소와 함께 공공신학 컨퍼런스 개최 (2024.7.3.).

성 교수는 "최근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공공성에 토대를 둔 '선교적 교회'의 실천은 빼놓아서는 안 될 요소"라고 했다.

특히 공공성과 연결된 새로운 형태의 실천과 관련 "한국 교회의 공공성 하락과 도덕적 타락이라는 비판에 대한 성찰과 함께 한국 교회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다."며 "빈부의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고,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다하여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데, 교회마저 이런 세속주의적 가치에 동화되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변혁적 선교의 능력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3) 다음세대 리더 육성

한국 교회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기성세대를 따라 다니는 수동적인 위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임을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고 화평을 이끌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의 역사와 미래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 그 성장과 확장을 위한 가치관과 신념을 갖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받드는 인생을 사는 제자도를 따르며,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영성과 지성이 통합되고, 진리와 진실에 헌신하는 공적 양심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엘로티스는 이와 같은 정치 지도자와 신학 사상가를 양성하는 사명을 따르고자 한다.

- 정치 지도자의 리더쉽: 느헤미아 (김민석 교수)[19]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오늘날 한국 사회와 교회가 처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바라고,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책임을 자임한 인물이었다. 그는 바사 왕국의 궁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황폐한 현실을 전해 듣고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느 1:4).

예루살렘의 문제는 느헤미야 개인의 문제도 아니었고, 그가 직접 책임져야 할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멀리 떨어진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섰다.

[19] [김민석 칼럼] 새 정부의 시작, 교회의 임무 (데일리굿뉴스, 2025.6.7.).

이러한 공감과 책임의 자세는 오늘날의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덕목이다. 권력의 자리에 있음에도 국민의 고통에 둔감하거나, 고통을 정쟁의 수단으로 소비하는 태도는 참된 리더십이 아니다. 느헤미야는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고, 기도 속에서 행동을 준비한 사람이었다.

더불어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였다. 그는 혼자서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다. 느헤미야 3장에는 다양한 계층과 가문이 각각 맡은 구역을 담당해 함께 성벽을 건축한 기록이 등장한다.

그는 백성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배하고,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도록 조직했다.

느헤미야는 권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지도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백성을 동역자로 신뢰하고, 그들의 자발성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통합의 리더였다.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 또한 그러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공동체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내는 사람, 시민 개개인을 '지지자'가 아닌 '동역자'로 대우하는 사람이 참된 리더라 할 수 있다.

또한 느헤미야는 내부의 불의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 성벽 재건이라는 대의명분 아래에서도,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경제적 착취와 계층 간 불공정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특히 고리대금으로 인해 가난한 자들이 자녀를 종으로 팔게 되는 현실에 분노하며, 그는 고위층과 귀족들을 소환하여 꾸짖고 그들의 부당한 이익을 포기하게 한다(느 5:7~13).

나아가 그는 자신이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특권마저 내려놓고, 오히려 자신의 재산으로 백성을 섬겼다. 느헤미야는 도덕적 청렴성과 공의로운 행정을 통해 지도자의 본을 보였다.

오늘의 정치 지도자들 또한 마땅히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한 정의와 공공선을 실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다. 권력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며, 지도자의 진정한 권위는 공의로운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몸소 보여준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상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은가. 공감할 줄 알고, 책임을 지며, 불의에는 분노할 줄 아는,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를 섬길 줄 아는 지도자 말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리더십은 스스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깨어 있는 시민과, 신앙으로 중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부터 길러진다.

(4) 대한민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치유와 화평

대한민국 사회의 분열을 치유하고, 화평과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엘로티스가 붙들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11절로 15절이다. 김경진 목사님께서 2025년 6월 8일에 전해주신 설교 말씀은, 그 핵심 주제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베냐민에 대한 편애를 포기한

야곱의 결단이 성취한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화평, 그리고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이다. 이 말씀의 적용,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의 현실에 대한 적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잃게 되면 잃으리라 김경진 목사 (소망교회 담임목사, 2025.6.8.)
창세기 43:14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대한민국은 여러가지 이유로 지독한 분열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다양한 입장들, 이념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것이겠지만,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편애'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 맞고, 내가 싫어하는 상대방은 다 틀렸다는 생각의 틀, 내가 좋아하는 정당은 다 한결같이 맞고, 상대 정당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틀이 생각의 소통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민족을, 그리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통합하려면 우리 편, 너희 편을 가르는 편애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비판하고, 함께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정도, 회사도, 교회도, 어느 곳에서든지 편애가 있으면 분열이 생겨납니다. 편애가 강하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편애는 세상을 분열시키지만, 그러나 성령은 하나되게 하십니다. 편애는 분열의 영이지만, 성령은 연합과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와 이 세상을 혼란 속에서, 그 분열을 치유하는 길은 넓은 아량과 사랑입니다. 편애를 멈출 때 우리 앞에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성도들, 대한민국 국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 특히 진영 논리에 따른 편애가 지배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각 진영 내에는 배타적 정서와 편향성이 존재하고, 서로 다른 진영에 속해 있다는 요인만으로 상호 적대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의 틀이 작용하는 것이 그 현실이다. 그러나, 진영논리를 넘어 망각하지 말아야 할 우선적인 전제는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다. 서로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용하면서, 그러한 인식 위에 자유민주주의 헌법원리에 따른 정의와 원칙, 그리고 이성과 합리로써 보수의 가치와 진보의 가치가 경쟁하고 소통하며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엘로티스는 이러한 정신으로 국민화합과 국민통합을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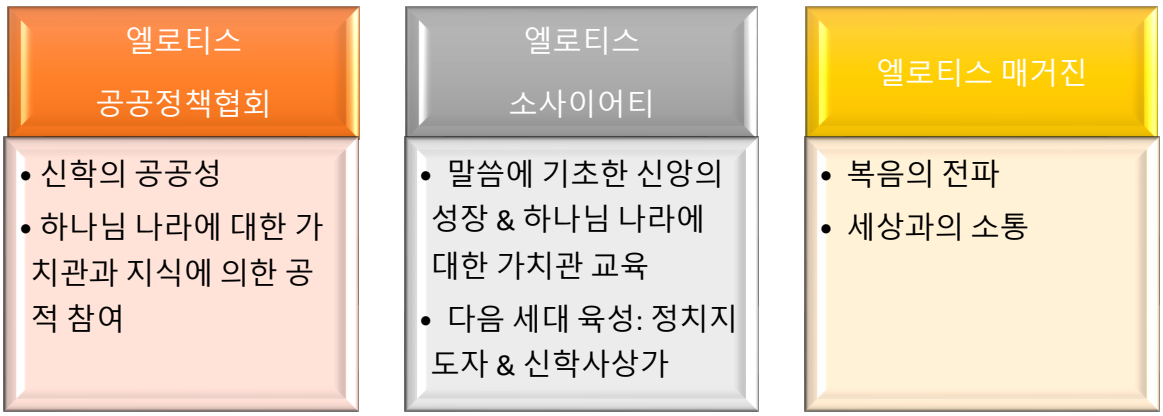
참고로, 2015년 1월,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대철(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2 · 8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진영 논리

극복과 중도개혁주의를 주창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념과 노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새정치연합이 운동권적 강경론이나 진영 논리에 근거한 도덕적 우월감에서 탈피해야 한다 … 종북세력과도 단호하게 단절해야 한다. … 중도개혁주의 노선을 통해 우파적 정책을 더 많이 채택해야 한다. 안보 문제에서는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종북세력으로 지목돼온 통합진보당과의 지난번 연대처럼 정책 연합이 확실치 않은 연대가 또다시 있어서는 안된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에 대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백서를 내서라도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20]

정대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진영 논리에 따른 폐해를 지적했는데, 한편으로는 보수와 진보의 가치 경쟁에 있어서 안보에 관한 보수의 가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그러나 "종북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절연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 주셨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5) 한국 교회의 위기와 엘로티스의 역할



[20] 2015년 1월,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대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2 · 8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중도개혁주의를 주창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념과 노선에 관하여 밝혔던 입장이다.

3. 한국 교회의 위기 진단

이 내용은 필자가 2026년 6월 21일과 6월 28일의 소망교회 김경진 담임목사의 설교 내용으로 스스로 신앙을 성찰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안일함'에 대한 반성을 되새기게 되면서 정리하게 되었다. 6월 21일 설교의 제목은 〔차브 라차브, 카브 라카브〕(이사야 28:9~13)였고, 6월 22일 설교의 제목은 〔그들이 술에 취한 이유〕(이사야 29:9~14)였다.

(1) 기복주의 신앙

지난 날 한국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던 한 가지 이유는 '기복주의 신앙'이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소망하며, 이를 신앙생활의 동기로 삼았던 과거가 있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인 부를 얻게 되는 것이 신앙의 모범적인 예로 인정받았다. 비록 그렇게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통해 그 신앙이 올바르고, 진실된 것으로 드러나도, 궁극적인 초점이 개인적인 성공에 맞추어 지면서, 신앙과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사실 지난 날의 '기복주의 신앙'에 대하여 엄격한 정죄의 잣대만을 들이대는 접근법은 망설여지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광복과 한국전쟁이래로 매우 가난한 나라였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고달픈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눈 앞에 급박하게 닥친 인생의 목표로 보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소위 'X세대'인데, 필자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기의 혜택을 누리며 성장할 수 있었지만, 필자의 조부모와 부모의 세대는 매일의 가난이 삶의 현실이었다. 필자의 할머니는 대구 달서교회의 성도로서, 아버지, 작은 아버지, 그리고 고모님을 키우셨는데[21], 필자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예화가 하나 있다. 할머니는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그리고 고모님을 중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하셨지만,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책걸상이 부족하다며 입학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이에 할머니가 그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책걸상 없어도 된다고, 그냥 신문지를 깔고 공부시킬 수 있다고 담판을 지어서, 그렇게 중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버지 세대는 가난한 집안 학생들은 대부분 수돗물로 점심식사 시간의 허기를 떼우던 세대였고, 아버지를 소망교회로 전도하신 적이 있었던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산골마을에서 호롱불을 켜고 공부하던 시대를 사셨다.

필자의 어머니의 고향은 전남 광산군인데, 현재는 광주특별시에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렸을 적 기억에, 외할머니는 새벽의 미명 속에서 무릎으로 기도드리던

[21] 할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였는지에 관하여는 듣거나 아는 바가 없다

그리스도인이었다. 외할아버지는 대구사범대학교를 졸업하셨고, 국민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었는데, 어렸을 적에 들었던 예화가 하나 있다. 외할아버지는 학생들의 영양문제를 고민하시다가, 학교 부지의 구석에 양계장을 하나 만드셨다. 양계장에서 직접 닭을 키우시면서, 닭이 산란한 계란을 학생들의 식사를 위해 손수 공급하셨다고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필자의 조부모와 부모의 시대와 비교하자면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필자가 어렸을 적에는 지방에 사시는 친척분들이 화장실에서 사용하시던 화장지는 오늘날의 두루마리 화장지가 아니라, 신문지를 잘라서 모아만든 화장지였는데, 오늘날은 크리넥스 티슈가 사은품으로 나온다. 예전에는 영양을 갖춘 평범한 식사와 끼니가 일상의 과제였지만, 오늘날에는 식사 후 먹는 디저트, "두쫀쿠" 열풍이 불기도 한다. 대한민국 사회의 빈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현대인이 누리는 경제적 풍요는 과거의 '가난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된 시대의 모습일 것이다.

(2) 안일주의 신앙

대한민국 사회가 일상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던 시대로 들어섰다고 알려졌었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한 위기의 중대한 원인을 '신앙의 안일함'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생명을 살리는 말씀에 대하여 진실되고 겸손한 절박함이 선명하지 않다. 김경진 목사에 따르면, '안일주의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이렇다. '늘 듣던 말씀이군', '그 말씀이 그 말씀 같다'.

모건 스캇 펙(M. Scott Peck)에 따르면, '자아'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이미지의 껍질에 불과한 반면에, '영혼'은 인간 존재의 핵심이다. '안일주의 신앙'은 바로 '자아'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종교적 규례에 따른 신앙생활을 실천했다는 개인적인 성취감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주일날에 형성할 수 있었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자아'(옛 사람; old-self)에게 충족감을 줄 수 있고, 여기에 예배 찬양 때 경험하는 일시의 감동은 예배에 관한 은혜의 기억으로 남는다. (이것을 '은혜받은 예배'로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된 예배이다.

김경진 목사의 〔그들이 술에 취한 이유〕 설교에서 소개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전통을 따라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의 그 '종교적인 손'이 바로 종교적 규례에 따른 습관적 · 형식적 예배에 해당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간절히 붙들었던 '병자들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는 진실된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안일주의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과 비교할 때, 그 영적인 무지와 자만이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기복주의 신앙’은 결핍의 현실과 경제적 고난 속에서 신앙의 겸손이 훈련되는 과정은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 이후의 단계에서 신앙의 동기가 엇나가게 되는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개와 겸손의 훈련에 따라 신앙을 바로잡을 여지가 있는 반면에, ‘안일주의 신앙’은 처음부터 안일함에 잠식되어 겸손의 길을 벗어난다. 그리고, 생명 말씀이 결핍되었을 때에 영혼이 빠져들게 되는 누추함 또는 비참함(김경진 목사)의 현실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외견상 신앙은 있는 듯해도, 생명이 없는 것이다.

> 갈라디아서 6:7~8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김경진 목사는〔차브 라차브, 카브 라카브〕설교에서, ‘내가 뿌린 영적인 태도,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드러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그들이 술에 취한 이유〕설교에서도 그러한 법칙이 하나님의 심판에 적용되는 것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고 진실되게 귀 기울여 듣기를 거부하는 능동의 신앙행태가 심겨져서, 진정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수동적인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심지 않는 선택을 할 수는 없다. 오늘의 삶 속에 겸손과 성실이 없으면, (겸손과 성실을 심지않는 것이 아니라) 나태함을 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지금 내가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종교적 규례에 따른 습관적 예배가 영혼에 말씀의 생명 은혜를 전달하지 못하고, 옛 사람(old-self; 자아)을 만족시키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안주할 때, 이는 사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귀결에 이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를 위하여, 김경진 목사의〔차브 라차브, 카브 라카브〕설교와〔그들이 술에 취한 이유〕설교 내용의 요약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김경진 소망교회 담임목사의 설교
차브 라차브, 카브 라카브 (이사야 28:9~13)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늘 듣던 말씀이군', '그 말씀이 그 말씀 같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 대하여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28장의 전체 맥락 속에서, 북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에브라임)과 남 유다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사야가

그들이 '술 취한 자'(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자)라고 경고하며, 특히 북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계획에 관하여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다. 북 이스라엘 정치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편을 드실 수 없다고 믿었고, 외교와 군사력을 의존하는 것을 지혜라고 여겼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경고를 통해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은 교만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라는 표현은 시적 표현이나 의성어 같기도 하고, 줄임말 같기도 하다. 이는 원어로 "차브 라차브, 차브 라차브, 카브 라카브, 카브 라카브, 제에르 샴, 제에르 샴"을 최대한 풀어서 번역한 말씀이다.

북 이스라엘의 정치지도자들과 남 유다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사야의 경고에 대하여, 그 경고의 언어가 여기 저기서 교훈을 모아서 만들어낸 것이라며 빈정거리며, 유치하다고 폄하한다. 그런 말씀은 젖뗀 어린애들에게나 가르치라고 한다. 주석 해설가에 따르면, 그들은 이사야의 경고를 '이러쿵 저러쿵', '어쩌구 저쩌구', 또는 'blah, blah, blah'와 같은 헛된 말로 받거나, 어린 아이가 언어를 처음 배울 때 발음하는 '가갸거겨' 등과 같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왜 그와 같이 술취한 자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자는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이사야 29:9~10)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하나님 심판의 한 모습이다.

우리도 그와 같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늘 듣던 말씀이군', '그 말씀이 그 말씀 같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품 안의 안식과 평안으로의 초대였다. (이사야 28:12, 예레미아 29:11 -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북 이스라엘의 정치지도자들	하나님
이사야 28:10	이사야 28:13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들이 이사야의 경고를 헛된 말, 유치한 말로 받아들인 후, 오늘 본문 이사야 28:13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그 경고를 그대로 돌려주시는 부분이 등장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리고 그들이

맞이하는 결과는 심판이다.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blah, blah, blah'라고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하실 것이다. 'blah, blah, blah'. (이사야 28:13)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다.

'반셀름즈'는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앗수르 어로 바꾸어 말씀하신 것이라 주장하는데, "나가라, 그를 나가게 가라, 기다리라, 그를 기다리게 하라'라는 전투 명령어라 한다. 이것의 의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사야의 경고에 대하여 유치하다며 조롱하였는데, 그들이 조롱으로 내뱉었던 말이 자신들을 잔인하게 짓밟을 앗수르 군대의 무서운 군대 명령어로 뒤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그와 같이, 그 영적으로 잠자는 자의 불신과 자만의 언어는 심판의 언어로 우리에게 되돌아 온다. (이사야 28:11 - 주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칠 것이다 - 새번역)

내가 뿌린 영적인 태도,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드러나고 있다.

그들이 술에 취한 이유 (이사야 29:9~14)

하나님 말씀과 경고에 대하여 '차브 라차브, 카브 라카브'라고 반응했던 북 이스라엘 정치지도자들과 남 유다의 제사장들은 왜 술에 취한 자같이 되었으며, 그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신학적 지식으로 인하여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경고, 하나님 심판의 도구였던 앗수르의 침공이 임박한 재앙을 믿지 않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외교적 계산과 군사력을 신뢰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앗수르의 침공이 임한 재앙의 때에, 그들은 잠든 자가 되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능동태 수동태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이사야 29:9~10)	
능동태	수동태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알 수 없게 된다. (이사야 29:11 - 모든 계시가 밀봉한 책과 같이 되어 읽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내가 원할 때에는 얼마든지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말씀을 계속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완악한대로 내버려 두신다. 들을 수 있을 때,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위기가 임하였기에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수도 없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자가 되어 가는 비극이 발생하게 된다.

이스라엘은 절기가 이를 때마다 제사를 규례를 따라 드렸지만, 형식적인 제사였을 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아니었다. 그저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하여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셨다. (이사야 29:1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의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하시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셨다. 바리새인과 서시관들은 장로의 전통의 규례를 따라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였다.

진정으로 정결한 '손'은?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은 "그때에"를 통해 15장으로 넘어가며, 14장과 15장에는 두 가지의 '손'이 등장한다.)	
마태복음 14:35~36 그 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태복음 15 장; 마가복음 7:2, 5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간절히 붙들었던 손	장로의 전통의 규례를 어겼다며 제자들을 정죄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종교적 손

장로의 전통 규례로 하나님의 뜻을 범한 예: '고르반' (마가복음 7:11) -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의미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로 특정되어 부모님 봉양에 그 재산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다. '고르반'

전통을 명분으로 삼아 자신의 소유욕을 따라, 부모의 공경이라는 십계명의 제5계명을 어길 수 있었던 것이다. '고르반'은 또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었다. 외견상으로는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하나님께 서원하는 경건한 행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동기는 부모에게 들어가는 부양비를 아끼고자 하는 탐심이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셨다 (마가복음 7::7)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절기를 잘 지키며 입술로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실제 모습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고, 탐심을 채우기 위해 '고르반'이라는 종교적 전통을 방패막이로 삼았다. 겉으로는 거룩한 헌신자였지만, 실제는 영적인 도둑이었다. 이처럼 내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기 시작할 때, 사람은 영적인 만취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로 인생에 진짜 위기가 찾아 왔을 때, 앗수르 침공이라는 대재앙의 순간이 왔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만다.

왜 하나님 말씀이 밀봉한 책과 같이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가? 공허한 것처럼 느껴지는가? 우리의 예배는 진실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능동형의 삶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수동형의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나의 영적인 무능함과 비참함을 인정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기 위하여 뻗었던 그 간절한 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직 귀가 열려있고, 눈으로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입술만의 공경이 아니라, 온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위기 때에 맹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I. 12.3 계엄과 탄핵에 관하여

1. 이재영, 개혁적 중도보수주의자

내가 스스로를 "개혁주의적 중도보수주의자"로 정의하게 된 계기를 설명자면, 내가 깊이 존경하고 본받고자 하는 역대 대통령들은 세 분이 계신다. 고(故) 이승만 대통령, 고(故)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적 인물로서 내게 영향을 주셨지만, 대학생 시절, 김대중 대통령은 살아있는 김대중 정치를 통해 대학생 이재영에게 영향을 주셨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에 자유의 터전을 세우셨고, 한미동맹의 구축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지정학적 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시는 역사적 전환을 이루셨으며, 대한민국이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공헌해야 하는 사명을 물려주셨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입증해내셨고, 경제발전 및 산업근대화를 통해 국가의 정통성을 확고히 해주셨다. 김대중 대통령은 보수정치계에는 부재했던 중도 · 통합의 정치를 통해 한국정치 리더쉽의 귀한 본을 남겨 주셨다. 사실, "개혁적 중도보수주의자"로서 이재영에서, '중도'는 김대중의 중도 · 통합 정치를 의미한다.

정치적 가치관에 있어서는 그 차이를 부정할 수 없고, 한반도 북핵 위기를 잠재적으로 더욱 악화시켰던 민족주의 신념의 문제가 있지만, 국내정치에 있어서 김대중 · 노무현 정치의 국민을 위하는 진정성으로부터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김대중의 중도 · 통합의 리더쉽, 그리고 노무현의 소통의 정신을 배웠다.

---

2. 12.3 계엄과 탄핵,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사명

- 12.3. 계엄과 탄핵에 관한 입장 정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자, 보수의 근본적 책임론

2024년 12.3. 비상계엄 권력 발동은 그 정치적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판결을 통해 밝혀진 사실관계 요소들을 고려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련하여 반성과 성찰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비상계엄 권력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해당하지만, 그와 같은 막중한 비상권력의 실효적 행사는 정부권력에 의한 발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의회권력에 의한 지지에 의하여 뒷바침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계열의 의회권력의 지지 확보가 난망한 가운데, 2024년 22대 총선 패배로 인하여 보수는 의회권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2대 총선 패배는 보수의 책임이었다. 그러므로, 2024년 12.3. 비상계엄은 의회권력의 충분한 지지가 미비된, 상당한 실패의 위험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했던 것이다.

운동권 진보좌파의 의회권력 농단에 의하여 초래된 국정운영의 위기에 대응하여 등장하게 된 비상계엄 정국 가운데, 간과된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2024년 총선 패배로 인하여 운동권 진보좌파에게 의회권력의 주도권을 내어주었던 보수 정치의 실패다. 그리고, 총선 패배, 즉 보수 정치 실패는 보수의 혁신과 통합의 부재로 인하여 국민의 신임을 상실하게 된 결과였다. 혁신과 통합의 부재로 인한 보수 정치의 실패와 총선 패배 문제는 반탄 진영에는 의회권력 확보의 미비로 인한 계엄 실패의 중대한 요인으로, 찬탄 진영에는 보수의 혁신과 통합에 의하여 국민 신임을 얻어 총선에서 승리하고 의회권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면, 운동권 진보좌파의 의회권력 농단이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는 결국 계엄의 불필요 사유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치루게 된 2025. 4.2. 재보궐선거는 보수의 패배로 귀결되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 민주당에게 텃밭을 내주게 되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이 차지했던 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경남 거제시, 세 곳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판결을 앞두고, 보수는 '광장의 정치'에 집중했지만, 강성지지층은 상대적으로 과대표집화 되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투표층은 분화되었고, 그 결과로 보수는 다시 '선거의 정치'에서는 패배하였던 것이다. 21대 총선도 동일한 이유로 인하여 보수의 패배로 귀결되었던 바 있다.

보수의 정치는 〔선거 패배 → 운동권 진보좌파에게 휘둘리기 → '광장의 정치'에 몰입 → 다시 선거 패배〕라는 악순환의 공식을 따라가기만 할 것인가? 보수는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그리고 더 크게 패배할수록, 다시 비상계엄에 의지해야 하겠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길로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계엄과 탄핵사태, 이 모든 결과는 (찬탄이나 반탄 입장에 관계없이) 보수 정치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며, 보수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는 보수 정치가 모두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보수 정치의 실패에 대한 성찰을 통해 보수에게 새로운 시대적 사명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는 반드시 과거의 패러다임을 깨고 나와야 한다.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은 변화했다. 민심은 정치의 객체(결집과 동원의 대상)가 아니라, 척도 또는 바로미터이다. 정치적 선택과 결정, 행위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과거의 정치에서 유권자 시민들은 '반공 및 자유국가 수호' 이데올로기의 구호를 따라 결집되고 동원되는 수동적인 정치적 지위를 수용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반공 및 자유국가 수호' 이데올로기의 구호를 외치며 민심을 결집하고 동원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과 결정, 행위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정치가 요청되는 바, 보수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변화와 혁신을 꾀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계엄도 민심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마냥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라는 구호를 앞세워서 취해졌던 것이 아니었는가?

2025 조기 대선 이후, 한국 보수에게는 보수 재건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새롭게 얻어야 하는 과제가 닥쳐왔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폭력이나 혁명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그러한 정치적 신임을 쟁취해야 한다. 보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과 통합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보수 정치의 스탠다드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